

연평도 주민 '몸과 마음 살피기' 임무 완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긴장시켰던 연평도 포격사건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지난해 12월, 한국건강관리협회에 특별 임무가 내려졌다. 다음 아닌 연평도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우리 협회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현장에서 상처받았을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고자 자발적으로 꾸러진 자원봉사단이 12월 4일, 인천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 *김은섭 세한주드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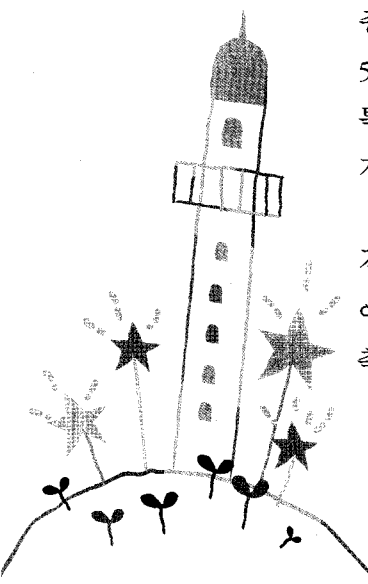
'제때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인천·경기지부를 대표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방사선사, 행정요원 등 이날 현장에 동원된 인력은 총 40여명. 무료검진을 위해 각종 검진 장비와 이동검진차량 2대까지 동원되었다.

포격사건으로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된 연평도를 떠나온 400여 명의 주민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긴장한 상태가 역력했지만 주민 대다수가 중장년층 이상인 50~80대인 분들인데다 지병을 앓고 있던 분들도 상당수 있어 건강상태가 심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공기도 탁하고 불편했던 찜질방 생활로 몸도 마음도 더욱 쇠약해져 있던 터라 대부분의 주민들이 적기에 현장을 찾은 자원봉사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검진부터 사후조치까지 꼼꼼하게 주민 배려

이날 검진은 찜질방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 중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100여명을 대상으로 비만도 및 혈압을 측정하는 기본검사 외에 소변검사, 혈액질환, 간 기능, 고지혈, 당뇨, 신장 기능, 심전도, 스트레스 측정 등





총 14종 39항목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검진 후 투약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현지에 상주하는 의사와 협의해 처방을 실시하였으며, 2차 검진 및 정밀 검진이 필요한 주민의 경우 인근의 인천의료원 등과 연계해 추가 검진 및 치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했다. “짬질방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마음까지 허전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건강도 챙겨주고 이런저런 상담도 해주시니 몸도 마음도 한층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주민들은 협회 식구들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윤정하 본부장 / 건강사업본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사회공헌활동은 미래진행형!

한편 그동안 사회 소외계층에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온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국 16개 봉사단 릴레이 봉사활동, 특수계층 건강증진사업 등 2011년의 시작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사업본부 윤정하 본부장은 “앞으로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대한민국 어느 곳이라도 사랑봉사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하석훈 상담의사 / 서울서부지부

“전반적으로 지병 있으신 분들,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많더군요. 상담을 하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전쟁이라도 나면 연로하신 분들은 어떡하나 걱정도 되었고요. 짬질방에 오래 계시다 보니 피부병이 생기신 분들도 있고,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상철 과장 / 건강사업본부

“현장에서 스트레스, 체성분 등의 검사와 상담을 진행했는데 짬질방이 열악해 대부분 수면부족으로 고생 중이었습니다. 또 일부 주민은 포격의 충격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보기에 참 안쓰럽더군요. 다들 말 편히 주무시지도 못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지훈 팀장 / 건강사업본부

“현재 협회에서 다양한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독거노인,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등 모든 분들을 다 도와드릴 수는 없어 늘 안타까웠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이번 봉사처럼 우리의 힘이 필요한 곳이라면 앞으로 전국 어디든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